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노동존중선거대책위원회

보도자료

문의

노동국

연락처

02-6788-3619

e-mail

cpla@minjoo.kr

“노동자가 존중받는 나라 우리 손으로 만들어내자” 한국노총 각급 조직, 정책협약·지지선언·정책간담회 이어져

한국노총 산하조직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의 정책협약, 지지선언, 정책간담회 등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노총 대전지역지부, “노동자가 존중받는 나라 우리 손으로 만들어내자”

한국노총 대전지역본부는 5월 21일(수) 오전 11시,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에서 노동이 만드는 정의로운 사회대전환과 대선 승리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노동존중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은 “오늘 지지선언은 조합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를 모아, 대한민국 정치가 노동의 언어를 듣게 하고, 노동의 가치를 정책의 중심에 놓게 하려는 결연한 의지를 표현하는 자리”라면서 “조직된 노동의 힘이 세상을 바꾸는 현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두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노총 대전지역본부 김용복 의장은 “이재명 후보는 현장에 있었고, 노동자의 손을 잡았으며, 현실 정치 속에서도 노동존중을 끝까지 외친 사람”이라며 “그가 제시하는 노동기본권 보장, 정의로운 산업전환, 안전한 일터, 공공성 강화는 단지 공약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는 나라의 청사진”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노총 대전지역본부는 이재명 후보의 승리가 곧 노동자의 승리라는 확신으로 모든 역량을 다해 함께 하겠다”며 “노동이 당연한 사회, 노동자가 존중받는 나라를 우리 손으로 만들어내자”고 호소했다.

방위사업노동자위원회, “이재명 후보는 노동3권 확보와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최적의 후보”

K-방산 노동자들도 노동3권 보장과 방산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방위사업노동자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위사업 노동자들은 노조법, 국방과학연구소법, 방위사업법에 의해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조차 박탈당한 채 노동하고 있다”면서 “이재명 후보는 방위사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노동3권 확보와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최적의 후보”라며 지지의 이유를 밝혔다.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할 보편적 권리가 유독 방위사업체 노동자들에게만 적용되지 않는다”며 “방위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은 현장 노동자들의 권리를 되찾아 주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노총은 국방과학연구소법과 노조법 42조를 반드시 개정해 방위산업 노동자들을 현장의 당연한 주체로 우뚝설 수 있게 만들겠다”며 “방위사업노동위원회 동지들과 함께 승리하는 6월 3일을 맞이하겠다”고 밝혔다.

콜센터노조연대, “노동이 만드는 정의로운 사회대전환을 실천할 최적의 후보”

한국노총 콜센터노조연대는 같은 날, 오후 3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전 조직적 역량을 결집해 대선 승리를 위한 총력 지원을 다짐했다.

곽현희 한국노총콜센터노조연대 의장은 “이재명 후보는 소년공 출신으로 노동자·서민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어 노동이 만드는 정의로운 사회대전환 실현을 위한 최적

의 후보”라며 지지 이유를 밝혔다.

박홍배 노동존중선거대책위원회 의제별실천단 책임의원도 “콜센터 노동자를 포함하여 어느 한 사람의 노동도 배제되지 않는 나라, 노동이 존엄하게 대접받는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함께 열어가자”고 강조했다.

금융노조 산하 협의체, 이재명 대표 릴레이 지지선언

같은 날 금융노조 민주평등연대협의회, 금융노조 지방은행노동조합협의회, 금융노조 국책금융기관노동조합협의회 등 노동존중선대위 금융노조본부(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산하 조직의 지지선언이 이어졌다.

노동존중선대위 금융노조본부 김형선 위원장(금융노조 위원장)은 “지난 8일 더불어 민주당과 정책협약을 맺은 이후 산하 협의체 단위로 별도 지지선언을 하는 것은 ‘지역소멸’, ‘공공기관 민주화’ 등 숙원 과제들을 해결하겠다는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응원하기 위함”이라며 “조합원들에게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알리고 승리의 깃발을 크게 드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각급 단위 정책협약·지지선언·정책간담회 이어져

이날 오전 11시에는 노동존중선대위 공동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교원공무원 생존권 공동투쟁위원회의 정책협약식도 진행되었다.

한국노총 산하조직의 대선승리 실천 활동은 내일(22일)도 계속된다.

의제별 실천단 중 하나인 백세시대 소득보장 실천단(14시,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금속노련 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14시 30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공공연맹 공무원본부(15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가 정책협약 및 지지선언을 진행한다. 한국노총 경기중부지부(10시 30분, 안양노동복지회관), 금속노련 부산지역본부(15:30, 서면 이재명 후보 선거본부)가 지지를 선언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노총은 4월 28일(월) ~ 29일(화),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제21대 대통령선거 지지 정당 결정을 위한 모바일 투표를 진행해 과반 이상을 득표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 정당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대선 후보와 ‘노동이 만드는 정의로운 사회대전환’을 실천하는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끝/

※ 첨부: 현장 사진



▲한국노총 대전지역본부 지지선언



▲주4일제 네트워크 정책협약식



▲방위사업노동자위원회 지지선언 및 정책협약식



▲금융노조 민주평등연대 지지선언



▲금융노조 지방은행노동조합협의회 지지선언